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정부가 평생 연금과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정액형)				가입 대상	
주택가격	2억원	3억원	5억원	나 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60세	41만원	62만원	103만원	주택보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70세	61만원	91만원	153만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80세	97만원	146만원	244만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대상주택: 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지사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노후행복편지

주택연금

2018 VOL.25

HF 초점

더 새로워지는 주택연금의 변화

시니어 Restart

인생 대표작을 기다리며, 배우 임현식

느리게 걷고 싶은 길

간절곳 소망길

건강한家 즐거운家

자연과 하나 되는 집, 친환경 주택

빛나는 인생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움

매일 새로운 당신 내일 더 멋진 그대

우리는 늘
할까 말까 하는
선택으로 고민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더 오랜 뒤를 기대하며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능성과 꿈, 변화와 성취로 인한
성장은 계속됩니다.
이 계절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을 때
한발 더 나아간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당신이
잠 아릅답습니다.

CONTENTS

새로운 오늘을 꿈꾸다

- 04 노후행복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 06 테마에세이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의 지금
- 08 HF 초점 더 새로워지는 주택연금의 변화
- 10 시니어 Restart 인생 대표작을 기다리며, 배우 임현식
- 14 느리게 걷고 싶은 길 간절곳 소망길
- 18 건강한家 즐거운家 자연과 하나 되는 집, 친환경 주택

더 나은 내일을 그리다

- 20 시니어 트렌드 유튜브로 여는 시니어 인생 제2막
- 22 건강의 정석 추위질수록 더 위험한 심혈관 질환
- 24 바른 머니 사용법 한눈에 알아보는 2019년 세법 개정안
- 26 HF 시선 주택연금 11주년 기념 고객사은행사
- 28 HF 소식
- 29 독자의 소리
- 30 찾아가는 독자평가회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_주택연금 2018 Vol.25

발행일 2018. 12. 1 **발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등록번호 부산남. 바00004 **발행인** 이정환 **편집인** 장우철 **기획** 윤지혜 **이슬기**
에디터 박정은 신상후 김영은 전은영 오남경 **디자인** 이영환 **사진** 김재경 **일러스트** 설상완 **인쇄·제작** 효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공기업입니다.
주택연금 소식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
따뜻한 경영으로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물러가고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겨울을 마무리의 계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계절,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겨울은 마음을 나누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온정을 나누고 뭉다보면 어느새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저희 공사도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취약계층의 주택도배, 장판, 타일 등을 꾸며주는 HF드림하우스 등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배달은 독거노인, 저소득자 등 주민들에게 연탄을 기증하고 직접 배달해 드리는 활동입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 공사 임직원이 힘을 모아 서민들을 위해 연탄배달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무더운데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주실 때마다 힘이 불끈 솟고 군데군데 묻은 시커먼 연탄재가 훈장처럼 빛나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어르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평생교육은 한글교실, 요즘 관심이 많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과 공사 직원이 한 명씩 짝을 이뤄 수업하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걱정 없이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은퇴고령자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운영하여 총 8,000여 명의 수강생에게 은퇴 관련 경제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은퇴준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와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강좌는 지역별로 진행되고 전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수강생 중 한 분은 “요즘 은퇴 후 3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게 도와준다고 생각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일방적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니어의 소통 창구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주택연금은 누적가입자 6만 고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최고령 가입자는 107세, 최고령 이용자는 113세로 성큼 다가온 백세시대에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가 다가온다고 하니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 모두는 따뜻한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포근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 정 환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의 지금

글_ 박정은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늙기 시작한다.”



학문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며 기술을 연마하는 배움을 넘어, 아는 바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수백 년 전에 남겼던 이야기가, 여전히 멈추지 말고 정진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젊은 날을 지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르익다

아름답다는 단어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고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의 시니어도 한때는 그런 대상이었다. 머리 위에는 햇살이 반짝거리고 가슴에는 뜨거움이 타오르며 주체할 수 없이 패기만만한, 그 존재만으로 빛나는 청춘.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단발머리 중학생이나 학생모를 눌러쓴 고등학생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은 낡고 색이 바랬으며, 생기 가득하던 소녀의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뺨뺨하던 소년의 볼도 깊이 패인 지 오래다. 광택이 흐르던 깡통이 녹슬고 탄탄하던 원단이 낡고 헤지는 것처럼, 세월을 거스르거나 시간이 지나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남는 존재는 없다. 쉬지 않고 창공을 누비는 새나 변함없이 활짝 핀 꽃이 어디 있는가.

시간이 흘러, 보이는 아름다움이야 이렇듯 조금씩 줄어들다 하더라도, 꽃 진 뒤 맺히는 열매처럼 인생의 깊이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르익는 시절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인생, 인생 제2막, 바야흐로 시니어의 때다.

최근 몇 년 사이, 시니어들을 소재로 한 매체가 여럿 소개되었다. 열정 많은 30대 CEO에게 풍부한 경험으로 울림을 주는, 70대 인턴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있다.”고 외치는 ‘실버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황혼의 배낭여행’을 콘셉트로 한 예능프로그램까지. 모두 화제에 오르거나 큰 인기를 끌었다.

‘몸이 늙지, 마음이 늙나’를 외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역시 세월이 흘러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준다.

이 순간, 배움에 가장 이른 시기

셰익스피어가 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배움을 강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3040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의 제목이다. 여러 미디어나 콘텐츠에서 소개된 이 문장은,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인생에, 배우기에,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표현으로 종종 활용되기도 한다. 악기를 배우고 등산을 즐기며 커피를 내려 마시고 셀카카메라를 다루는 시니어들에게 세상은 아직도 배울 것이 가득한 곳이다. 1920년생으로 올해 우리나라로 99세, 내년이면 100세를 맞이하는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의 이야기도 유명하다. 끊임없이 학습하며, 무슨 일이든 할 것을 강조하는 김 교수는 아직도 몸소 배움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인생 후배들에게 60세 이후로도 공부건 취미건 상관없이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자신감을 가지고 뛰라고 강조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면,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다. 책을 읽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기에 다양한 경험으로 생긴 풍부한 노하우와 지혜까지 겸한, 나이 지긋한 분의 모습은 이미 멋있다. 늙음 혹은 나이 들과 연륜 또는 성숙함을 비교해본다. 비슷한 뜻을 지니지만, 어감이 확실히 다른 말로 전자는 ‘한창때를 지나 쇠퇴하다.’라는 의미가 강해 마이너스 이미지를 주는 반면, 후자는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숙련되다.’라는 플러스의 느낌을 전한다.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반짝거리고 뜨겁고 빛나는 당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움과 새로움으로 채워나가는 시니어들의 플러스 인생이 아름답다.

더 새로워지는 주택연금의 변화

정리_ 주택연금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는 시기, 주택연금에도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보다 연금 인출한도가 확대되고 추가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연금의 다양한 변화들,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최근 금리상승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주택연금 인출한도로는 대출상환에 한계가 있어 상환용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출한도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했던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의 장점!

- ① **소득 증가 효과** :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덜고 연금도 수령**
- ② **주거안정** : 받은 **연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원리금 연체 등의 문제가 없어** 평생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에 따른 비교】

연령	도입 전(최대 70% 인출)		연령	도입 후(최대 90% 인출)	
	인출한도	연금액		인출한도	연금액
60세	8천만 원	18만 원	60세	1억 3백만 원	6만 원
70세	1억 1천만 원	27만 원	70세	1억 4천 1백만 원	9만 원
80세	1억 4천 7백만 원	43만 원	80세	1억 8천 9백만 원	14만 원

* 정액형, 주택가격 3억 원, 연소자 기준



하우스웨어링 제도 도입

※서울시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시범도입 후 전국 확대 시행 예정

하우스웨어링 제도란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이 남는 방을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은 추가소득을 얻고, 청년층은 적은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웨어링 제도의 장점!

- ① **추가 노후소득 확보** : **청년층에게** 연금주택의 일부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주택연금 외 **추가소득 확보**
- ② **사회적 고립감 해소** :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고독문제를 해결**하고 유대감을 형성
- ③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 도배, 장판 등의 **비용을 지원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시범도입 후 전국 확대 시행 예정

실거주요건 완화 및 전부임대 허용

고객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빈 주택에 전부임대를 허용합니다.

전부임대 허용의 장점!

- ① **실거주요건 완화** : 입원·요양원 입소 및 자녀봉양을 위한 이사 등 불가피하게 연금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등록 전출이 가능**
- ② **추가 노후소득 확보** :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빈 주택에 **전부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임대수익을 확보
- ③ **지속적 주택 관리** : SH공사 등 임대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공실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확보**

세 번째



인생 대표작을 기다리며, 배우 임현식

글_ 신삼후 사진_ 김재경

인생은 농사와도 같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비료를 주며 애지중지 가꿔야 한다. 배우 임현식, 50여 년 연기 경력을 지닌 베테랑 배우임에도 인생 농사의 결실은 아직 멀었다고 한다. 아직도 인생 대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에게서 인생 농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다.



01



02

01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구들이 운치를 더해주는 공간에서 배우 임현식은 매일 연기 연습도 하고 시 낭송도 하며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

02 어머니가 30여 년간 가꿔왔던 시골 농장과 한옥 집은 언제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보금자리다.

03 그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강아지 메리와 함께.



03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배우 임현식은 서민적이고 친근한 외모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특히 <한지붕 세가족>의 순돌이 아빠, <허준>의 병부잡이 임오근, <대장금>의 대령숙수 강덕구 등 감초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얼굴을 알아보는 베테랑 연기가 됐다. 이런 그가 지금 한적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는 약 15년 전부터 경기도 송추의 한 농장에서 생활하며 배우로서의 활동과 바쁜 농장 일을 병행하고 있다. 은퇴를 한 것도 아닌데 귀농을 결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에 대한 책임감도 한몫했다.

“이곳은 1973년에 어머니가 땅을 구입하여 40여 년 동안 가꾸어왔던 곳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오게 됐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요. 고생도 많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오래 전부터 어머니를 도우면서 곁눈질로 농장 일을 보고 듣고 배웠던 시절의 추억이 깃들여 있다. 가끔 삭신이 쑤실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한 날이면 이곳 생활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머니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쉽게 그러질 못한다.

“1,000여 평의 땅을 경작하며 그중 300여 평에는 사과나무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니 늘 바빠요. 무거운 것을 들기도 하고 쟁기질이나 소독 등의 작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연기 연습을 할 때나,
매 순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다음에 더욱
값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



01

땅이 나를 부른다

귀농 생활이 고생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힘든 만큼 보람과 기쁨도 함께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에게 밥을 준 후에 농장을 다 돌아봐요. 그때마다 땅이 나에게 말 없는 주문을 계속합니다. 김을 매야 하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고, 농작물에 물도 줘야 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그렇게 나를 불러내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1년 농사가 끝나면 마음이 뿌듯하다. 특히 빨강게 잘 익은 사과나무 앞에 서 있는 순간의 행복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뿌린 만큼 거두는 자연 속에서의 삶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었다.

“땅과 식물, 물과 햇빛에 둘러싸여 사는 삶이 행복해요. 농장 일이 벅차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도 장점이예요.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밤에 자리에 누울 때도 아침이 기다려진다. 식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이슬 맺힌 식물들이 영롱한 빛을 발한다. 자연과의 완벽한 공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이다. 누구에게나 쉽게 권하기 어려운 귀농 생활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인생 후반부 들어 가장 잘한 선택인 셈이다.

아직도 연기에 배고프다

바쁜 전원생활 중에 ‘그가 혹시 본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방송국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웃음) 농장 일을 할 때나 연기를 할 때나 언제나 열정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작품 속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임현식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2



03



04



05

01 화순전남대병원 홍보대사로서 틈틈이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또한 국립암 센터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있다.

02 2018년 1월에 개봉한 영화 <비밀바라>에서는 황혼의 나이를 넘긴 모태솔로, 현직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03 국민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공처가 강덕구 역할을 맡았으며 소화하여 일본에서도 팬미팅 행사를 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04 2015년에 방영된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윤미라(이말숙 역)에게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김순돌 역할로 열연했다.

05 1994년 방영된 <한지붕 세가족>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박원숙과는 지금까지도 절친으로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믹하고 구수한 캐릭터와 신들린 듯한 애드리브 연기는 배우 임현식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아무리 잘든 칼이라도 갈아서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무뎌지게 됩니다. 연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며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다시 보면서 ‘저럴 때는 이렇게 연기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연기 연습을 하거나 시 낭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부질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겁이 난다는 그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한다.

시니어의 건강, 즐거움이 관건

연기와 농장 일을 병행하려면 체력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기 마련. 작년에 그는 건강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다. 그 일을 계기로 부쩍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됐다.

“먼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거의 하지 않던 운동도 시작했고요. 걸을 때는 가급적 경보를 하려고 애씁니다. 팔을 앞뒤로 움직이고 열심히 걷다 보면 저절로 온몸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체력관리를 해야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특히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에게는 ‘계속 사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려주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사회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극장에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게 좋죠.”

요즘 그는 이순재, 최불암 같은 선배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항상 잃지 않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영화 <대부>의 말론 브란도처럼 자신만의 아우라를 풍길 수 있는 대표작을 남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붙잡기 위해서라도,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 연습과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힘써서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기쁨은 그의 인생을 활기치게 움직이는 동력이다. 힘들여 가꾼 농작물의 결실을 보는 기쁨도 좋지만,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 자부할 만큼 ‘배우 임현식’만의 품미가 가득한 대표작을 찍는 기쁨도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간절곶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에 닿기를

소망길

글_ 전은영 사진_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 제공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시기다. 괜히 기분은 싱숭생숭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이때,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데 딱 좋은 곳이 있다.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가 펼쳐지고, 기분 좋게 마음을 보듬는 숲이 이어지는 길. 느리게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소망길이다.



01

01 아름다운 자연을 따라 걷는 길, 간절곶 소망길에서는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다.

02 찬란하게 빛나는 간절곶의 일출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



소망이 깃들다

울주군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간절곶을 찾은 사람들은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에 새로운 한 해의 다짐이나 희망을 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꿈이 달성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간절곶과 이어지는 해안선 산책길이 조성됐다. 길을 걸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간절곶 소망길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지만, 지금은 천혜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간절곶 소망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걷기여행길'로 꼽혀, 걷기 좋은 길로 인증 받았다. 명선교에서 출발하는 간절곶 소망길은 나사해수욕장까지 약 8km에 달한다. 바다와 숲이 그리는 풍요로운 자연은 물론, 오랜 이야기를 품은 마을과 우체통, 풍차 등의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곳곳에 자리해 이 길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여기에 그동안 이곳을 지나며 소망을 빌었을 사람들의 마음이 길 위에 남아 걸음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 준다.

네 개로 이루어진 코스가 저마다 특별한 풍광을 나타내는 것 또한 간절곶 소망길이 사랑받는 이유다. 명선교에서 진해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1코스 연인의 길, 대바위공원에서 간절곶까지 이어지는 2코스



01 바다를 따라 난 숲길을 걷는 2코스, 02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드라마하우스의 풍차, 03 소망우체통은 간절곳 소망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04 나사해수욕장 여행의 고마운 동행, 나사항 등대.

낭만의 길, 간절곳에서 평동마을까지 이어지는 3코스 소망의 길, 평동마을에서 나사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4코스 사랑의 길은 그 이름처럼 테마별로 구분돼 있어, 길 여행의 재미를 더했다. 각 코스는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인 데다, 약간의 오르막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완만한 편이라 누구라도 쉽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길의 장점이다.

풍경에 빠지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절곳 소망길을 걸을 차례. 간절곳 소망길을 즐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코스 명선교에서 시작해 나사해수욕장까지 코스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절곳 소망길을 걷는 첫걸음으로 명선교에 올라서면 푸른 강이 빛나는 풍경이 먼저 반긴다. 울산 최대의 인도교인 명선교는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사이 회야강을 잇는 다리로, 그 규모도 규모지만 학을 본뜬 우아한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원수 집안의 남녀가 사랑에 빠져 몰래 도망을 치려다 학이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 덕분인지, 다리 중간에 자리한 마주 보는 학 조형물이 애뜻하게 느껴져 ‘연인의 길’이라는 코스 이름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명선교를 지나 회야강을 따라 걸으면 1코스의

기점인 진해해수욕장에 닿는다. 울산에서 가장 긴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드넓게 펼쳐지는 맑은 바닷길은 그 자체로 일상의 피로함을 날려주는 힐링을 선사한다. 여유가 된다면 걸 좋은 백사장을 직접 밟는 것도 좋다.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모래알은 마음까지 기분 좋게 다독이기 때문. 이와 함께 저 멀리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 전하는 명선도와 바다가 이루는 절경은 진해해수욕장의 또 다른 볼거리다.

이어지는 2코스는 간절곳 소망길에서도 아름다운 풍광으로 손꼽힌다. 그 시작을 알리는 대바위공원에서는 온통 투명하게 반짝이는 동해를 만날 수 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함께 일렁이는 모습은 간절곳 소망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장면. 누구라도 이곳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연이라는 그림을 감상할 수밖에 없다.

이어 바다와 어우러진 숲길을 지나면 간절곳 소망길이 처음 조성될 수 있었던 간절곳으로 연결된다. 대바위공원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면 간절곳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천천히 둘러보며 감상하기에 좋다. 넓게 펼쳐진 들판에 자리한 풍차는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해안가에 솟은 등대는 기념사진을 찍기에 좋은 포인트. 또한, 간절곳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높이 5m의

소망우체통. 실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엽서를 부치면, 간절곳의 뛰어난 풍경까지 꼭꼭 눌러 담아 전달된다.

길을 거닐다

간절곳에서 잠시 발을 쉬었다면 이제 3코스의 기점 평동마을로 향하자. 3코스는 바다를 따라 평탄하게 이어지는 산책길로, 난간을 두고 바다가 나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앞을 보고 걷다 보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나 있어, 시원한 바다 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각자 자신만의 속도로 거닐 수 있는 게 3코스의 묘미인 셈. 길 중간에는 동그라미 두 개를 포개 만든 조형물이 있는 응응광장이 잠시 쉬었다 갈 곳이 되며, 신이 먹던 떡이 굳어 바위가 됐다는 ‘떡바’ 등 재미있는 이야기도 숨어 있으니 길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코스다.

3코스와 4코스가 겹치는 평동마을의 정겨우면서도 푸근한 인심을 지나면 드디어 간절곳 소망길의 마지막 목적지 나사해수욕장이다. 해변의 길이가 1km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특히 나사해수욕장이 유명한 이유는 육각

모래다. 육각 결정 덕에 입자가 곱고, 옷이나 몸에 묻어도 잘 털려, 뒤처리가 깔끔하니 걱정 없이 모래위를 거닐 수 있다. 이 외에도 나사항 등대, 방파제 등이 고마운 동행이 되어준다.

느긋하게 해변 산책을 만끽했다면 해수욕장 뒤로 연결되는 나사리벽화마을도 잊지 말자. 조용한 마을 길을 따라 따뜻한 색감으로 칠한 벽화가 기다리고 있다. 색색의 그림이 더해진 소박한 마을 풍경은 또 다른 길 여행의 맛을 선사한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간절곳 소망길. 오래 간직된 풍경을 따라, 곳곳에 피어오른 이야기를 따라, 마음에 품었던 바람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한눈에 보는 간절곳 소망길



1코스(1.6km, 40분) : 명선교~진해해수욕장
2코스(3.5km, 90분) : 대바위공원~간절곳
3코스(1.2km, 40분) : 간절곳~평동마을
4코스(2.2km, 60분) : 평동마을~나사해수욕장

자연과 하나 되는 집 친환경 주택

글_ 김영은



최근 친환경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녹색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우리의 생활 터전인 집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집 '친환경 주택'이 각광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집

친환경 주택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를 이르는 말로, 녹색 주택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해 성분을 함유한 화학 소재가 아닌 자연 소재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채광과 단열이 잘 되는 구조를 갖춰 주택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도록 설계된다. 더 나아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주택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포착되고 있다. 자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마주한 현실이 되었으며, 삶의 중심이 되는 집이 그 실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친환경 주택에 갖는 철학이다. 이렇듯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 더 나아가 전 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에서 친환경 주택은 그 중요성을 더한다.

친환경 강화 추세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여 소형주택의 패시브화¹⁾를 위한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설계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친환경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꾸준히 우리 사회의 화두로 거론되는 '힐링'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소화행, 슬로 라이프, 율로 등 용어는 다양하지만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가장 들어맞는 주거 형태가 친환경 주택이라는 것이다.

자연에도 건강에도 좋은 삶터

다양한 친환경 주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조 주택'이다. 목재는 단열성이 좋고 탄성으로 인해 충격 흡수에 뛰어나 내진성도 높다. 실제로 지진이 잦은 일본의 목조 주택은 진도 7의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 목조 주택은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장마철 눅눅함이나 동절기 건조함에도 걱정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목재가 전통적인 친환경 자재라면, 차세대 건축 소재로 각광 받는 것은 '구조토'이다. 구조토는 단세포 식물성 플랑크톤인 구조류의 화석으로, 수많은 구멍이 나 있는 초다공성 물질이다. 탈취와 제습 효과는 물론 알칼리성을 띠어 곰팡이와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균 작용을 하며, 불에 타지 않아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최소화해준다. 페인트, 벽지 등 다양한 구조토 응용 상품들이 시중에 이미 출시되어 있다.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친환경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바로 건물 외벽 또는 옥상에 녹화 사업을 실시하는 '그린 커튼'과 '그린 루프'이다. 이는 건물이 뽁뽁하게 들어찬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 실천 방법으로 꼽힌다. 그린 커튼과 그린 루프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여름철 실내온도를 낮춰 냉방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열섬 현상²⁾이 녹지 감소로 인해 일어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녹화 사업은 이상 기후를 완화하는 특효약이기도 하다.

친환경 주택은 우리가 그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한 자연을 수복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일이기도 하다. 자연에 상냥할 때 인간의 삶 역시 더 건강하고 여유로울 수 있다. 자연에게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 친환경 주택은 나의 생활과 함께 자연을 보듬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1) 단열 효과가 높은 벽이나 창 등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거 형태로 만드는 것.

2) 낮 동안 축적된 열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지역보다 도시의 온도가 5~10℃ 이상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로 인해 밤 시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발생한다.



유튜브로 여는 시니어 인생 제2막

글_ 김영은

미국 PEW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앱)은 무엇일까. 바로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이다. 시니어들이 이토록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00세 시대의 새로운 활력, 유튜브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은 2018년 앱 내재가치가 가장 많이 성장한 앱으로 유튜브를 꼽았다. 유튜버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영상에 붙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많은 초등학생들이 진로 희망으로 유튜버를 꼽을 정도로 유튜브는 시대의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시니어의 유튜브 사용률이 높은 만큼 시니어 관련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유튜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시니어들에게 유튜브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중파 TV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든 취향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추억의 7080음악을 모아놓은 주크박스 영상,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실황 및 판소리, 품바 공연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검색만 하면 간단히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하다. 여기에 별다른 과금 없이 광고 시청만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들은 더더욱 유튜브를 선호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유튜브인 만큼 시니어 유튜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버 유튜버로는 ‘Korea Grandm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박막례 씨를 들 수 있다. 그는 치매 예방차 손녀의 권유로 각종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입문했다. 특유의 구수한 입담과 독특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어 70이 넘는 나이에 구독자 55만 명을 거느린 유튜브 스타로 거듭났다.

인기 시니어 유튜버의 탄생은 같은 시니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뜻 깊다. 시니어가 문화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플루언서¹⁾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성공사례가 되어주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뛰어난 접근성이다. 영상은 본질적으로 이미지, 소리,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문맹은 물론 시각·청각 장애 여부에도 큰 어려움 없이 널리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만큼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유튜버가 되기 위한 방법 또한 유튜브에 있다. 유튜버가 각광받는 직업이 되면서 예비 유튜버를 겨냥한 채널 또한 생겨나고 있다.

시니어들이 유튜버로 거듭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하는 방법’이라고 치기만 하면 관련 영상들이 주르륵 나타난다. 각자 기호에 맞는 강좌 영상을 보며 꾸준히 반복해서 따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좌 외에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중견 유튜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편집해 올린 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들을 두루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트렌드를 익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노하우를 기록한 저서나 간단한 영상 편집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도 시중에 많이 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시장을 개척한 장본인이자 〈유튜브의 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한 유튜버 대도서관은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력’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야말로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간의 공부만 뒷받침되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은퇴 후 시니어들이 새로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 내 힘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릴 때의 기쁨.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시니어들의 황혼에 열정을 불어넣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줄 것이다.

1) '영향을 끼치다'라는 영어 단어 'Influence'에서 유래한 말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 주로 SNS 등지에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추워질수록 더 위험한 심혈관 질환

글_ 이철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따뜻한 이불 안에서 꿈쩍하기 싫은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은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쉬워 시니어들이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다. 이런 추운 날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 질환이다. 찬 공기에 신체가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겨울철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겨울철 아침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밤사이 따뜻한 이불 안에 있다가 아침의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는 수면 중 이완 상태였던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하루 중 아침에 돌연사가 가장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찬 공기에 갑자기 직면할 경우 말초동맥들이 수축하고 혈관저항이 상승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이로 인해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며 고혈압 환자는 뇌출혈의 위험에, 심장질환 환자는 심장발작이나 협심 흉통 악화의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 또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유발될 가능성에 놓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질환이 미리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듯이 심혈관계 질환 역시 예방과 악화 방지가 가능하니 평소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적, 음주와 흡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과음, 흡연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다. 과음은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과 심근 허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흡연 또한 담배 속의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물질들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며 혈관 속의 노폐물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음주와 흡연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찬 공기 노출은 그 어느 경우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과음과 흡연 후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날 아침 등산이나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Tip

뇌졸중 자가 진단법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 ① 한쪽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
- ②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혹은 발음이 어둔해진다.
- ③ 세상의 반쪽이 잘 안 보이고 캄캄해진다.
- ④ 어지럽거나, 한쪽 혹은 양쪽으로 자꾸 넘어진다.
- ⑤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이 생긴다.

겨울철 운동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운동이 중요하지만 야외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심장전문의 진료와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시작한다.
- 반팔보다는 가벼운 보온이 되는 편한 옷을 입고 하도록 한다.
- 과음과 흡연을 과도하게 한 다음 날 갑작스러운 아침 운동은 되도록 자제한다.
- 갑자기 힘이 많이 소요되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조깅, 자전거, 속보,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여름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나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운동 중 흉통,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발생하였다면 심장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눈에 알아보는 2019년 세법 개정안

글_ 전영석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세무사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안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소득 재분배에 힘을 실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니,
시니어들이 알아두면 득이 되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보자.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존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암 등의 중증질환에 의한 동거봉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이라도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 ▣ 동거봉양 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개정안

-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좌동)
 - 〈추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 *시행규칙(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80%에서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과세표준금액에 바로 영향을 미쳐서 매년 5%씩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다.

현행

-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0.5%
6~12억 원	0.75%
12~50억 원	1%
50~94억 원	1.5%
94억 원 초과	2%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0.75%
15~45억 원	1.5%
45억 원 초과	2%

개정안

- ▣ 주택·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등
 - 주택 :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6억 원 이하	(좌동)	
6~12억 원	0.85%	1.15%
12~50억 원	1.2%	1.5%
50~94억 원	1.8%	2.1%
94억 원 초과	2.5%	2.8%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15~45억 원	2%
45억 원 초과	3%

임대소득세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미등록 임대업자의 부담을 강화시켰다.

현행

- ▣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소득세액 산출 방식
 -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세액 = [수입 금액×(1-필요경비)-공제금액]×14%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 원

개정안

- ▣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차등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 원

또한, 기존에는 종합과세 대상자만 임대주택 등록자로 인정되었으나, 분리과세 대상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 8년 임대 시 세액의 75%
 - 종합과세 하는 경우 적용

개정안

- ▣ 세액감면 대상 확대
 -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약속

주택연금 11주년 기념 고객사은행사

글_ 편집부 사진_ 김재경

지난 10월 누적가입자 5만 8천 명에 이른 주택연금이 6만 번째 가입고객을 앞두고 있다. 공사에 대한 신뢰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의 장점을 알린 고객들 덕분에 주택연금은 백세시대 노후안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에 앞장선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2018년 11월 1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주택연금 11주년 기념 고객사은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사에서 이정환 사장은 “주택연금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주택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과 같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신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설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으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불암 홍보대사는 “오늘 비축하다가 내일이 힘들다.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다.”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어르신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어르신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알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고객들은 국악·음악 공연 등을 관람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내 집에서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집,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더 많이 알려져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HF NEWS

‘더 나은 보금자리론’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과 임직원들이 모여 독거노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1만장을 전달했다. 7월에 연탄을 전달한 것은 장마철 노후주택 습기 제거 및 곰팡이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에 연탄보일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서부산지사 개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7월 19일 부산시 사상구 과법동 송원센터빌딩에 서부산지사를 열고 개점식을 가졌다. 서부산지사는 부산시 서부권 5개구와 경남 양산시를 관할하며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주택사업자보증 ▲중도금보증 ▲전세자금보증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서부산지사 개점으로 공사는 전국에 21개 지사를 운영하게 됐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나눔활동에 앞장서는 기관 및 개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을 중심으로 ‘HF 드림 하우스’, ‘HF 어르신 일자리 이음 사업’, ‘워킹맘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연금 독자의 소리

●●주택연금 4행시!



석정숙(서울시 강동구)

‘꿈꾸는 시니어’에서 가수 남궁옥분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특히 매 순간 감사하고, 내 안의 행복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연금 제도를 이용하기 전과 가입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인의 경험담도 실리면 좋을 것 같다.

주 림진 내 얼굴에 미소가 절로 나네
택 할 때는 힘들었는데
연 금을 매달 받고 보니
금 같은 내 노후 걱정 없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상탄(서울시 양천구)

은행에서 주택연금 광고지를 보고 즉시 서부지사를 방문하여 계약하였다. 소식지의 모든 내용이 유익했지만, 특히 노인 우울증 글을 보고 87년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주 택 담보 이자 걱정 끝에
택 한 것이 주택연금이오
연 금 받고 노후 대책 세우며
금 실 좋은 부부 되었네

이정호(청주시 상당구)

매거진을 통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은행 업무 처리 후 본 매거진은 최고였다. 특히 함께 본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다. 퇴직 후 소소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내용도 다뤄졌으면 좋겠다.

김보라(경기도 구리시)

TV 광고를 통해 주택연금을 알게 되었는데, 소식지에는 더 쉽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노인우울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 오늘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말동무가 되어드려야겠다.



주광옥(청주시 청원구)

‘울타리 안에 가꾸는 자그마한 행복’에서 집은 행복과 사랑을 만드는 보금자리이고, 자신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는 내용이 좋았다. 집을 잘 정리 정돈하고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받을 예정이다.

주 늑든 노후 인생을
택 택한(?) 생활로 만들어주며
연 실연실 웃음을 주는
금 은보화보다 더 좋은 주택연금!

주 객이 전도되는 똥단지 같은 행동 말고
택 도 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연 신 먹을 거 입을 거 아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금 값에서 전략하기 전 주택연금으로 목소리 나는 노년을 보내요~

주 택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택 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듯이
연 금을 위해 주택을 이용하자
금 리 걱정없이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택연금 최고!

축복 같은 노후 행복연금

글_ 김영은 사진_ 김재경

100세시대가 마냥 행복일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은퇴 후 소득 없이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아득함 때문일 것이다. 주택연금은 시니어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행복 솔루션으로 고객 사이에서 정평이 나있다. 주택연금이 선사하는 노후의 기쁨을 체감하며 홍보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강원지사 명예홍보대사 이한승 고객을 만나보았다.



이한승 고객

이한승 고객은 대전 목원대학교를 나와 교회를 개척하는 삶을 살아왔다. 30대에는 최전방에서 군목으로 10년간 목회를 하고, 40대에는 정선 사북광산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50대에는 원주 나환자촌에서 6년간 특수 목회를 했다. 그후 예수가 다 되어 원주의 일반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을 했다.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터라 변변찮은 대비를 하지 못했던 그의 앞에 노후는 갑작스레 닥쳤다.

“수중에는 은퇴 후 마련한 주택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교단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에 은행 직원의 소개로 주택연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강원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친절히 설명 들은 뒤,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옴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한 지 약 3년, 어린아이가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는 것처럼 이한승 고객 또한 매월 연금 지급일이면 마음이 절로 배불러온다고 한다. 현재 그는 충북 충주시에서 작은 아들과 함께 한국치매예방협회가 인정하는 치매예방노인학교를 운영 중이다. 은퇴 후 한양대학교 대체의학과를 나와 노인건강복지 관련 자격증도 4개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기반으로 직접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의식주를 해결해주었고, 지금 하는 사업에 필요한 목돈 마련까지 지원해줘 정말 좋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바빠지고 삶에 충실하게 되니 몸과 마음이 예전보다 더 젊어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노후 행복까지 보장해주는 ‘행복연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79세, 주택연금을 통해 그는 인생 2막을 스스로 주도하며 새로운 꿈을 그려나간다. 목표가 있음으로 인해 삶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나날이 체감하며 이한승 고객은 하루하루 젊어지는 것 같다고 전한다.

“앞으로 원로목사 부부를 위한 요양병원을 세우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은퇴목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같은 교인들로 구성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료 받으며 행복하게 노후를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승 고객은 자신이 만끽하고 있는 행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택연금 홍보에 앞장서는 ‘행복 노후 전도사’로서 길을 나설 것이다.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해졌습니다

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안전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환경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

1. 주택연금 제도에 대하여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2.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3. 앞으로 <주택연금> 소식지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 주택연금으로 4행시를 지어 적어주세요.

우리는 늘
할까 말까 하는
선택으로 고민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더 오랜 뒤를 기대하며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2018
VOL.25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제작되는 <주택
연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목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시니어라이프 종합 매거진
Vol. 25

노후행복편지
주택연금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수집항목 :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앞

